

무용예술학연구 제26집 봄

# 사적(史的)흐름으로 본 한국 고대 춤의 종교적 양상

송혜순

세종대 강사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한국 고대 춤의 개념과 종교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사적(史的)흐름으로 본 고대 춤의<br>종교적 양상 | Abstract |

## I. 서론

### 1. 연구 목적

한국 고대의 춤은 우리 민족이 집단 취락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에 대한 숭배 또는 자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하여진 주술의례로 춤과 음악을 즐겼다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주술의례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종교적인 형태로 형식화 되어 삼국시대 이후에 이르면서 오늘과 같은 춤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선사시대 이후 종교는 삶의 주요 방편으로 자리 잡았고 국가적, 사회적 핵심체로서 신과의 교섭을 통해 만물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원시 문화 속에서의 춤 역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주술의례 형태였으므로 춤을 주관하는 자가 종교적인 우두머리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 원초적인 근거는 무속이 기반이 되었으며 그들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를 영입하여 수용하면서 타종교와 융합,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에 있어 종교적인 의례는 천지합일의 유일수단으로서 인간의 정신적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제공하는 기원의식의 기능에서 점차 심미적 춤으로 변화, 발달, 전개되면서 현재와 같은 공연 예술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 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고대 춤과 종교와의 개연성을 비롯, 고대인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춤의 발생 및 변천사를 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 고대의 춤과 종교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국조 단군이 무당이라는 설, 신라 2대왕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이 왕호(王號)이자 무칭(巫稱)을 의미한다는 점으로 보아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핵심체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여진 주술의례는 상당히 거대했을 것이며 이를 주관하는 우두머리가 춤추는 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어 종교가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현재의 종교로 이어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민족적 주술의례를 통해 파생되어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습합되면서 생성된 종교현상과 춤의 근거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렇듯 고대 춤의 근거를 파악하고 재정립하여 체계화 하는 것은 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사료 보안을 위해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 문화 속에서 형성된 춤의 양상을 조사하여 고답적 해석을 통해 춤 속에 내포된 종교관을 찾아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국의 시대적인 구분은 학자들마다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한국의 고대 부분은 상고시대로부터 통일신라, 발해 이전까지로 제한한다.

## 2. 연구방법

과거 우리나라 춤의 역사를 보면 왕권중심의 궁중 문화에 편중되어 있어 궁중 춤을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반면 민중 춤이나 종교의식 춤은 현재 많이 전승되고는 있으나 사적연구는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몸에서 몸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춤의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록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야 하나 부득이 시대적 배경이 고대사적인 부문이므로 문헌적 고찰에 주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되었다.

첫째, 상고시대와 부족국가시대의 기록은 유물이나 유적지 그리고 고분벽화를 통해 그 당시의 춤의 근거를 추론해 보았다.

둘째, 우리나라와 중국문헌의 기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셋째,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부분의 기록은 중국문헌, 일본문헌, 우리나라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무속, 불교사, 도교사 등 종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연극사, 음악사, 미술사, 문학사, 무용사 등의 연구물과 춤 관계 문헌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시대별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고대 종교사상이 우리 춤에 어떠한 형태로 부각되고 접목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한국 고대 춤의 개념과 종교적 배경

### 1. 한국 고대 춤의 개념

쿠르트 작스(C. Sachs)의 『World History of the Dance』를 보면 음악과 시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회화와 조각은 공간속에 존재하지만 춤은 시간과 공간속에 동시에 존재 한다고 한다. 때문에 창조자와 창조물, 즉 예술가와 작품은 아직 하나인 채로 남아있고 리드미컬(Rhythmical)한 동작의 패턴(Pattern), 조형적인 공간감각, 가시세계나 상상 세계의 생생한 재현 등에 대해 인간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춤으로 창조해 낸다. 이는 곧 내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물질이나 돌, 언어 등을 사용하기 전에 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춤의 참 힘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신과 함께 있도다.”라 했던 페르시아 시인 루미(Rumi)의 말처럼 춤은 들뜬 영혼의 변화를 정연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미개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더라도 신을 추구하는 행위, 나아가서 인간 운명을 좌우하는 초인적 힘의 일부가 되려는 현신의 의식이며, 주문이요, 기도요, 예언이 춤의 원

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점에서 보면, 춤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에 대한 고조된 열정이 인간의 팔다리를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며 춤을 갈망하는 까닭은 춤을 추는 사람은 마력을 얻게 되고 그 마력은 그에게 건강과 승리와 생명력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sup>2)</sup>

춤의 원류는 여러 민족에게 공통된 모방 본성이나 유희 본능에서 비롯된다. 그 예로서 영어의 Play, 불어의 Jeu, 독어의 Spiel, 중국어의 희(戲), 일어의 아소비(논다) 등은 유희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에 해당되는 것은 “노릇(놀음)”과 “짓”이라 할 수 있다. “노릇”은 유희, 휴식, 가요를 뜻하는 어원의 “놀”에서 나온 말이며, “노릇(놀)노릇”과 “노래의 (놀)놀개)놀애)”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임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에는 당시의 중국어를 “잡희(雜戲), 잡기(雜技) 노릇”, “노릇희”, 노릇바치우로 새겼으며, 역어유해(譯語類解, 1690)에는 “구란 노릇<sup>ㅎ</sup>라 못는<sup>ㄷ</sup>”, “몽과희(弄把戲) 노릇<sup>ㅎ</sup>다”로 풀이하였다. 손짓, 몸짓에서의 “짓”을 최남선은 Mime(과)을 나타내는 말로, 소리(음성)없이 몸짓으로만 의사를 표시하는 “몸짓 말”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절주가 따르면 “몸짓 춤”(Mimic Dance)으로 연장되고, 다시 소리가 따르면 하나의 거리(한 단락, 한 장면, 한 막)를 나타내는 “짓거리”(Drama)로 발전한다<sup>3)</sup>고 했다. 이야기를 몸짓과 춤으로 표현하는 Pantomimic Dance가 되면 이미 그것은 극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리가 따르면 짓거리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미개 사회에 있어서의 극은 춤으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며, 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주술적인 의의를 가진 것이 많다.<sup>4)</sup> 중국 최고의 문자인 갑골 문자에 의하면 ‘무(舞)’ 글자의 시초는 ‘무(巫)’이며, ‘무(巫)’자의 원래 형상은 래(來)라고 한다. 이 글자는 사람이 소꼬리나 새 깃을 가지고 춤추는 형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무(舞)’와 ‘무(巫)’가 원래 동일한 글자였다는 것을

1) C. Sachs(1992). 세계무용사, 김매자 역, 박영사, World History of the Dance(1937), p.4.

2) C. Sachs(1992). 위의 책, p.5.

3) 최남선(1947). 조선상식문답, 동명사, pp.312-314.

4) 이두현(1987). 한국연극사, 학연사, p.3.

알 수 있다. 만주어, 퉁구스어의 ‘Samam’에서 ‘Shaman(무당)’으로 파생된 말이며, 만주어의 ‘Sam-Dambi’는 “나는 춤춘다.”는 뜻이다.<sup>5)</sup>

이렇듯 춤과 관련된 단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단어들을 살펴보면 무도, 율동, 짓, 락(樂), Dance, Ballet, 무용이라는 단어들이 있다. 이들 단어는 ‘몸의 움직임’이라는 점으로는 공통어이지만 각각 나름대로 인식하는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무도(舞蹈)”라는 말은 한자 문화권에서 춤을 지칭하는 통칭어로서 발동작이 따르는 몸동작이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사교춤을 일컫는 단어로 전환되었다. “짓”은 우리 인류 최초의 언어 구조이며 최소한의 의사 전달 매개체로서 연극, 노릇, 행위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으며 “율동”은 조선 시대 말 서양 선교사들의 교육 Program으로 현재에 와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일반인들의 가벼운 몸의 움직임을 말한다. 또한 무당이 여러 개 방울을 놓고 흔들는 모습을 “락(樂)”이라 하였는데 “무(舞)”와 “락(樂)”은 상호 보완적으로 동일한 어원에서 분화된 말이다. 현재 음악에 춤을 덧붙였을 때 쓰이는 말로는 ‘악,가,무,(樂,歌,舞)’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궁중에서 악,가,무,(樂,歌,舞)가 일치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언어였다. “Dance”는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춤이며, Ballet 역시 서양에서 파생된 춤 일반을 총칭하는 말로서 20C 초까지 Dance라는 말과 같았고 이태리 귀족의 결혼 축하 연에서 출발하였다가 현재는 춤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용(舞踊)”이라는 말은 현재 고급 예술 춤을 지칭하는 단어라 볼 수 있으나 1926년 일본의 무용가 이시이 바꾸(석정막)가 서양식 현대 무용을 소개하면서 전해진 일본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춤의 어원으로 ‘신라 2대왕 차차웅을 자충이라 했는데 자충은 무당이 자 왕이다’<sup>6)</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에 있어 자충은 무당, 왕, 신을 동시에 뜻하는 말로서 자충의 충이 춤으로 전환되었다고 추측 한다. 또한 몽골에서는 라마교의 의식 춤이면서 가면 춤인 ‘참’ (Cam)<sup>7)</sup>을 사찰에서 많이 추고 있다. ‘참’은 민속 무용의 뜻도 담겨 있으며 서역에서 전래된 용어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춤과의 연

5) Dordji Banzarov(1971). Shamanism연구, 白鳥庫吉 역, 신시대사, p.46.

6) 정병호(1992). 몽골민속, 북조리, p.222.

7) 정병호(1992). 위의 책, pp.223-226.

관성을 지닌 알타이어의 공통어<sup>8)</sup>가 아닌가 싶다. 유럽에 있어서 고대 춤은 그리이스 크레테 미술에 남아있는 춤의 자취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 영향에 의한 정의를 부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 고대의 종교적 배경

### 가. 무속

신화, 곧 풀이는 신의 근본과 내력에 관한 얘기다. 신화는 풀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며 신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친 끝에 어떻게 결정적으로 신격화되었는가 하는 얘기, 그것의 풀이가 곧 신화다.<sup>9)</sup> 고대 한국의 시조 신화는 단군신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김알지신화, 석탈해신화, 수로 등 6편이 있다. 신화는 객관적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궁극적 관심 또는 종교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sup>10)</sup> 따라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신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 요소가 고대에 기원되어 있다는 고대성과 전승자에 의해 해석이 윤색된 변화성이다.

한국의 무교란 한국의 고대 신앙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데 하나는 한국 고대 신앙이 무교의 일부요 또 그 기본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수천 년을 두고 문화사속에 흘러나오는 동안에 많은 변화와 다른 요소와의 혼합현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일정한 구조가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sup>11)</sup> 고대인의 종교 생활은 신화와 제례에 있었다. 고대인들은 생활과 신화와 종교 의례가 서로 얽힌 문화 현상, 즉 이분화된 생활 문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제례는 행위로 표현한 신화요, 신화는 언어로 표현한 제례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제례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고 제례는 신화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례와 신화는 자연과 생활의 질서 유지와 창조적 진행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8) 이병옥(1993). 고대한국무용사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5.

9) 김열규(1977). 한국 신화와 무속 연구, p.6.

10) 유동식(1976). 朝鮮のシャーマニズム, 學生社, p.28.

11) 유동식(1975). 韓國巫敎의 歷社와 構造, 延世大學敎出版部, p.25.

민고 옛 사람들은 이를 되풀이 해왔다. 여기에 생활과 신화와 제례 사이의 나눌 수 없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화와 옛 제례의 구조 속에서 고대인의 종교와 신앙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단군 신화의 예를 빌려 한국 고대 신앙을 파악해 보면 첫째는 천신 신앙으로 하늘에서 강림했다는 강림신앙이다. 둘째는 동굴에서 곰이 마늘과 썩을 먹고 인간으로 환생했다는 지모신으로 동굴은 미래를 상징하는 생산신(삼신)을 의미한다. 셋째는 천지의 융합과 창조 신앙이다. 이는 천신 환웅과 웅녀의 결혼으로 태어난 이가 단군왕검이요, 그는 새로운 문화 질서인 고조선을 창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혼돈(混沌Chaos)으로부터 질서(秩序Cosmos)를 창조한 창조신화이다. 이러한 신인 융합으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 단군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세계인 나라가 창조되었다.

고대 한국인들은 제례의 기초를 이루는 강건한 천신을 맞이하여 그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제천 의식이었다<sup>12)</sup>. 한국인들의 제천 의례는 농경 의례였고 농경 의례의 중심에는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되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며 많은 결실을 가져온다는 곡신(穀神) 신앙이 중요한 종교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대 제천 농경의례는 온 나라가 대회를 열고 연일 술에 취해 노래와 춤으로서 하나님과 농신을 즐겁게 하고 그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오는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전이였다. 제 지낼 때의 음주 가무는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들어가게 하며 거기에서 인신 교령을 경험하게 하는 종교적 기술이요 제의의 일부였다<sup>13)</sup>. 사람들은 엑스타시 속에서 탈아의 경지를 체험했고 거기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무(巫)는 춤으로서 신을 섬기는 자요 공(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뜻이고 인(人)은 춤추는 사람이 양편에 있다는 뜻으로 곧 무(巫)는 가무로서 신인(神人) 합일을 하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구조에 비추어 한국 고대신앙의 형태를 고찰한다면 성속변증법, 신인 융합의 엑스타시, 화복의 조절로서 고대 한국인들이 때에 따라 천제를 드린 것은 중국의 무교와도 일

12) 유동식(1976). 朝鮮のシャーマニズム, 學生社, p.49.

13) 유동식(1976). 위의 책, p.55.

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홍익인간

고조선의 무당이라는 직분을 가진 단군은 군주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샤먼의 직분까지 맡았으며 오늘날의 무당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수명, 질병 등을 다스리고 좌우했으며 신권통치자로서 제후국에 종교적 우두머리인 천군을 두어 하늘에 제사를 관장하였다. 단군은 군장 또는 통치자로서 신격을 지닌 인간이라 할 수 있으며 제천사상의 주재자로서 가무음곡의 풍속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단군이 관장한 농사와 생명, 질병과 형벌 그리고 선악등과 관계되는 360여종의 일이라면 인간이 사변하고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일과 행위가 남김없이 고루 포함된 것이므로 이중에 음악과 춤 등 예능활동이 모두 포함된 총체적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다. 불교

한반도에 최초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 제 17대 소수림왕 2년에 전진왕 부견이 순도를 시켜 불상과 불경을 보낸 곳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불교는 불교 전래 과정에서 한반도 토착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샤머니즘적 성격<sup>14)</sup>을 띠게 되어 초기에는 대중들에게 간헐적으로 전파되다가 선진 문화와 학문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통치수단의 하나로서 이용되어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시켰다.

불교는 인도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인도 불교는 선 수행을 중시 여긴다. 이에 반해 한국 불교는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인도나 중국의 불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국 불교의 특이성이라 하겠다.

#### 라. 도교

국가 종교로서 도교가 정식으로 들어온 때는 보장왕 때 연개소문의 건의에 의해 도입되었다. 도의 본뜻은 천, 지, 인의 존재, 기능, 실천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14) 곽전무용(1989). 한국 불교사, 민족사, p.23.

〈삼국지(三國志), 오서(誤書), 권13, 육손전(陸遜傳)에도 “희륙도교(熙陸道教)”라 하는데 여기서의 도교도 치인치세(治人治世)의 훌륭한 도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도교라는 말은 유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교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한역 불전의 “송에 가서 도교를 유행시키기를 바란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도교는 불교를 가르는 말이며 5세기 북위의 “구겸지”때의 도교가 불교를 칭하는 말임을 볼 때 도교라는 말은 유교와 불교 모두를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도교의 가르침이란 뜻은 유, 불의 가르침을 통칭하는 말이라 하겠다<sup>15)</sup>.

한국인은 공적, 정치, 생활면에서 유교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개인 처세적인 면에서는 노장, 도가 사상을 실천하였다. 도교의 원류는 한국 고대의 선에서 찾아야 한다. 삼국시대 말기 이후 유, 불, 도, 삼교가 유행할 때 당시의 도교는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백제와 고구려는 일찍부터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신라는 토착 문화의 성격이 강하여 고유의 선사상이 도교와 접맥되어 있고 삼국 통일 후 도교는 신라 고유의 도교가 중심이 되어 화랑도는 풍류도와 연관된 풍류도를 중심으로 한 선풍을 행했으며, 수련 도교적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유 사상에서 연유된 선적 기반위에 도교 사상이 배척 없이 수용되고 그 가운데 화랑도, 즉 풍류도 사상이 전개된 것이라 보인다.

#### 마. 그 밖의 민간 신앙

유, 불, 선을 의미하는 천지인(天地人) 사상은 천원지방의 중국 여씨 춘추에 전하는 말로서 “하늘은 둥굴고 땅은 네모져 있다.”는 말이다. 이는 동북아 일대의 공통 민간 사상으로 중국의 천단지단이 원으로 나타나 있고 하늘과 땅이 상통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경북궁의 향원정과 경희루의 둥그런 연못에 네모져 있는 정자 누각과 엽전, 첨성대의 조감도가 천지인(天地人) 사상으로 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정역사상은 우리민족을 중심으로 근원을 두고 한국에서 역이 완성되었다고 하여 한국을 새로 도래할 우주와 세계질서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통해 위기와 침체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다고 한다. 정역의 의의는 중국 성학에 연원을 두고 있다

15) 한국도교사상연구회(1994). 도교와 韓國思想, 亞細亞文化社, p.106.

그러나 정역은 재래 유학과는 달리 미래를 예견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선·후천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후천개벽사상을 역리적(易理的)·논리적인 형식으로 체계화시켰다는 점이 새 시대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이후 증산교·대종교·원불교 등 한국의 민족자생종교의 교리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유, 불, 선사상은 통일 신라 말기의 최치원의 행동과 저서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다. 최치원은 유학에 정통하였고 도·불을 용으로 하여 겸수(兼修)한 가위(可謂) 천재적인 학자였다. 그는 삼대 사상을 연구하여 삼교가 근본적으로 일원상에서 회통함을 밝혀냈다.

통일 신라 시대의 종교 현상은 Shamanism의 기존 바탕위에 외래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를 차례로 수용하였고 이렇게 융합된 종교문화 현상에서의 춤 성격은 그 사상적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했다. 이밖에도 동해 용왕이란 신라 사회의 호국 불교관을 반영하는 사상과 방위적 신관은 왕이 신과 어울려질 수 있는 도교적 방술사상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통일 신라 시대에 춤은 유교, 도교, 불교의 제 종교성을 내포하면서 종교성을 빌린 오락적 춤의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오락 성향의 춤은 신라 말기의 종교성 상실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궁예의 행위는 이를 단적으로 설명한다. 궁예는 자칭 미륵불이 되었으며 범패를 통해 자신을 찬양하는 방법으로서 행하였음은 삼국사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신라의 법흥왕(514-540)과 진흥왕(540-576)대는 신라 왕국이 비약적 발전을 한 시대였다. 그들은 불교와 중국 문화를 도입하여 원시적인 전통 문화 사회로부터 높은 문화 사회로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했던 것이다. 신라가 원시 국가 체제로부터 새로운 문명국가로 발전하는 이때 원시적인 원화 제도를 일단 폐지하고 한층 발전적인 형태로 이를 되살린 것이 화랑제도였다. 여기서는 여성 대신에 아름다운 청년을 뽑아 화랑으로 세우고 화랑도들을 모아 서로 도의를 닦고 가악을 즐기며 산수를 찾아 수행하게 함으로서 새로운 스타일의 지도자적 인격을 양성하려고 했다. 최치원은 나라에 현모한 도가 있어 이것을 풍류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풍속도는 유불선 삼교를 포함함으로써 형성되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외래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포섭한 주체적 전통 문화 또는 종교가 화랑도의 근간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화랑도는 결코 유불선 삼교를 종합해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 문화가 아니다. 이미 있었던 종교 문화가 능히 삼교를 포섭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통적인 종교 속에는 이미 유불선 삼교의 요소가 들어 있기도 했다는 뜻이다. 그러한 전통적 종교를 우리는 무교라고 했다. 그러므로 화랑도는 일단 무교가 주체가 되어 유불선을 흡수한 가운데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된다<sup>16)</sup>. 그러므로 화랑 조직은 단순한 청년 단체가 아니라 전통적인 무교위에 형성된 일종의 종교적 청년 단체이다. 최치원도 풍속도를 가리켜 “실내포함삼교”라 함으로서 화랑도가 무엇보다도 종교적 현상임을 시사하였다.

음양오행설은 도가의 사상이나 신선설과 나란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음양오행설은 우주와 자연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지만 점차로 인간의 행위나 생활이 우주와 자연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바뀌어 설명하게 되었다. 삼국 시대부터 전래된 음양오행 원리의 흔적은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 벽화, 사신도 즉 현무, 백호, 주작, 청룡의 그림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sup>17)</sup>, 우리나라 전통 악 소리의 근본이 되는 오성과 십이율, 팔음은 이 원리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이는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성은 궁, 상, 각, 치, 우로 “5”라는 숫자는 우주의 원리와 관계되며 오음은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과 관련이 있다<sup>18)</sup>.

### III. 사적(史的)흐름으로 본 한국 고대 춤의 종교적 양상

춤의 초기 역사를 말해 주는 유일한 자료는 프랑스에 현존해 있는 수 만 년 전의 원시인이 그린 석벽화이다<sup>19)</sup>. 이 벽화는 전쟁 춤을 묘사하고 있으며 전쟁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엑스터시적인 춤을 추고 있는데 이를 ‘무당’

16) 유동식(1975). 韓國巫敎의 歷社와 構造, 延世大學敎出版部, pp.84-5.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第6回)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韓國學의 世界化.

18) 한만영, 전인평(1989). 동양음악, 상호출판사, p.85.

19) C. sachs(1992). 세계무용사, 김매자 역, 박영사, p.25.

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구석기 시대의 화가는 주술의 효과를 얻기 위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춤을 재현하여 그린 그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스페인의 레리다(Lerida) 지방의 코글(Cogul) 벽화의 전쟁 춤, 동물 춤이라든가 우리나라 고분 벽화 등을 보면 이들의 공통된 개연성을 어느 정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 수단으로 모든 예술의 시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무용이 내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물질이나 돌, 언어 등을 사용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이것이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예지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생활상이 전개되고 동시에 춤의 형태도 점차 육체를 통해 우아하고 조화된 형태로 표현하게 되었으므로 원시문화에 있어 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예술적인 형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주술적인 기원 형태에서 비롯된 종교가 그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이들이 행하는 단순 충동적 본능<sup>20)</sup>과 종교적 본능<sup>21)</sup>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lias Canetti가 “의도적 이든 아니든 인간이 걸으면 울동적인 소리가 뒤따르기 마련이다”<sup>22)</sup>라고 지적했듯이 단순 충동적 본능은 인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어 원시인의 생활과 관련된 종속적 측면의 단지 참을 수 없는 욕구에서 춤을 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본능으로서 H. 리이드는 “원시인에게 있어 예술의 창조는 뜻대로 되지 않는 생활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sup>23)</sup>라고 했으며 성경린은 “인간이 집단 취락을 시작하면서 자연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집단적인 종교 의식을 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원시인의 생활상을 일반적인 견해로 추론하여 자연에 지배되는 어려운 생활이 종교를 필요로 하였고 그 양식의 필요로서 구체적인 형식으로 출현된 것이 춤이라고 보는 듯하다.

20) C. Sachs(1992). 위의 책, p.27.

21) 김양근, 무용의 탐구, 한국, 광보개발원, p.75.

22) E. Canetti(1960). 군중과 권력, 강두식 역, 주우, p.36.

23) H. 리이드(1974). 예술의 의미, 하중현 역, 정음사, p.10.

즉 신과의 대화로서 경외와 감사의 표현 등을 위해 무용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견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본능설은 학문적으로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개는 현존하는 원시 미개인의 생활상을 통하여 비교 추측하여 나온 결론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춤 자체의 특성이 '시간' '공간' '힘' '흐름'의 형식을 갖는 순간성의 예술임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춤의 기원과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현존하는 원시 미개인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시 춤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생존성, 주술성, 기원성, 전투성, 모방성, 집단성 등의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원시인들은 오직 생활 그 자체를 위해서 신을 섬기고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신과 통하는 언어로, 춤을 소원의 상징과 소망의 뜻으로, 춤을 제례 의식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점차 의식을 갖춘 춤으로 발전되었다고 사료 된다.

원시 종교 현상으로는 크게 샤머니즘(Shamanism), 애니미즘(Animism), 토템리즘(Totemism)으로 분류하며 각 종교적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춤 상황으로 표출된다. 샤만 춤은 신에게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는 춤으로 정령과 혼령의 춤으로, 토템(Totem)숭배의 춤, 주술 숭배의 춤으로 주로 종교적인 숭배 관념으로 표상해온 춤을 제례나 의식에 사용하였다. 애니미 춤(정령 춤)은 정령과 영혼의 춤으로 제례 시 신성시된 영혼과 의사 전달 수단으로 춤이 사용되었다<sup>24)</sup>. 토템 춤은 부락민들이 그들의 신에게 무사 안녕을 비는 제례 때에 춤을 추었는데 이때 숭배하는 동물들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춤을 추었으며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하고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쓰고<sup>25)</sup> 춤을 추었다. 이러한 의식에는 신을 받들고 감사의 뜻을 밝히기 위해 공손하게 받들었으며 기원제나 감사제에 있어서 신의를 갖는 언행이 필요했고 이러한 의식은 정성껏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사람이 즐겨하는 가무가 아니라 이 춤은 신령들을 즐겁게 하는 춤이었다.

한국의 무교란 이러한 고대 신앙에서 출발하였으며 역사를 통해 다른 종교 문화와 혼합되면서 무속 형태로 살아 남아왔다<sup>26)</sup>. 동이의 음주 가무 행위는 주술성의 공

24) 이병옥(1993). 고대한국무용사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9.

25) 이병옥(1993). 고대한국무용사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9.

26) 유동식(1976). 朝鮮のシャーマニズム, 學生社, p.61.

통점에도 불구하고 제 의식에 있어서 남북 간의 지역성을 나타낸다. 남방은 예, 한, 가락국 등인데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천신제가 주축이 되었으며 반면 북방 지역의 부여와 고구려는 농경 생활과 수렵민의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서 제의 시기나 신앙의 주체(고구려의 신앙 주체는 귀신(鬼神), 영성(零星), 사직(社稷), 대신(隊神) 등 고구려, 예, 한의 제사는 5월, 10월로 기록되고 있어서 농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여는 은 정월 또는 군사일등에 행해지는 점으로 미루어 수렵민의 호전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신이 나타난다. 이는 식량 부족에 따른 도발적 성격까지도 시사한다)가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남방계의 춤은 농경 사회의 풍요 주술 행위를 나타낸 듯한데, 삼한의 제의와 모습은 “춤을 출 때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서로 뒤를 따르며 땅을 밟고 높이 뛰다”<sup>27)</sup>는 기록으로 보아 이는 쿠르트 작스의 가장 흔한 주제의 하나인 도약 춤(leap dance)과 유사하며 높이 뛰면 뿔수록 곡식은 더욱더 크게 자란다는 것으로 땅을 밟고 높이 뛰는 행위는 주술과 관계되는 도약 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을 통한 춤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풍농을 기원하고 작업의 피로를 덜기 위한 농경 춤이었을 것이며 우순풍조와 추수감사를 위한 제천제였다.

정역을 통해 파생된 또 다른 춤의 근거를 살펴보면 고조선의 단군조로 올라가며 정신을 수양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영가무도이며 창법은 우리나라 악곡, 즉 범패·가곡·가사·시조의 창법과 유사하다. 여러 철학적·문헌적 근거들을 보면 심신을 단련하는 소리라고 보았다. ‘단기고사’를 보면 어른은 영가하고 어린이는 무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용바위에서 천지와 더불어 수무족도 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그 기원은 단군이전으로 추정한다.

정역에서 파생된 영가무도는 기본적으로 오행과 오장에 배당된 5음(궁·상·각·치·우)의 소리인 ‘음·아·어·이·우’의 다섯 가지 소리를 돌아가면서 느린 속도에서 부터 소리를 내고 점차 빠르게 소리를 내면서 손과 발을 움직여 자연스러운 몸동작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움직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고조되다가 고요함으로 반전되면서 심신이 모두 하나로 되는 깨달음의 길로 이어지는 원리(이

27) 삼국지 위지 동이전.

애주, 1996)이다.

이밖에도 고대 동이족의 찬송, 주술로부터 발달한 농경 춤인 주리무가 행해졌으며 인간의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관장한 통과의례로 춤과 노래가 병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질병퇴치와 예방을 위해 무악의 신비롭고 주술적인 영험이 사용되었으며 죄인에 대한 교화와 처벌을 위한 형벌 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구려에 있어서 부권 사회적 성격을 삼국지에서 보면 “아무리 힘써 농사를 지어도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복을 채울 수 없다.” “그 나라 사람들은 기운이 세다. 그래서 싸움을 잘한다.”<sup>28)</sup>라는 기록을 통해 고구려인들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자세히 지적해 주고 있다. 고구려의 춤은 그 사회적 성격에 따라 부권형의 문화를 산출하는 것으로 특히 남근숭배사상이<sup>29)</sup>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초기 국가 시대의 동제의 춤은 크게 북방계의 부권 사회 성격의 춤 행위와 남방계 모권 사회적 춤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남방계는 농경 사회의 풍요 주술 춤 활동으로 비교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춤 형식은 본질적으로 음주 가무하는 엑스타시(Ecstasy)의 주술 춤이라고 보아 샤머니즘적 종교 행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 고분에서 볼 수 있는 비천무도를 보면 천신과 도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림이다. 주자는 정과 동을 사람의 호흡에 비유하여 들며 마시는 것을 등에 내뿜는 것으로 정으로 설명 하였다. 공기를 들며 마시고 내뿜는 것이 호흡에 필수적인 것과 같이 동정의 상호 보완성으로 인간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주자는 숨을 비우는 것 곧 정을 기초로 보았다<sup>30)</sup>.

정은 주인이 되고 동은 손님이 된다.

정은 늘 사는 집과 같고 동은 걸어 다니는 길과 같다.

사람에게는 정할 때와 동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정이란 동을 기르는 뿌리가 되고 동은 정을 행하는 이유가 된다.

동 가운데 정이 있으며 발해서 모두 꼭 맞게 되는 것과 같아서 곧 이렇게 되면

동중에 정이 있는 것이다.

평일기 함양하는 공을 들이면 일에 임해서 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다.

28) 삼국지 위지 동이전.

29) 한우근(1970).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p.39.

30) 주정충부(酒井忠夫). 최춘식 역(1995), 한국인의 마음을 빛은 巫.儒.佛.道. pp.19-20.

위의 인용문은 도의 기본 성격을 파악한 내용으로 주자는 정을 주인 곧 마음의 본체요 본연의 상태로 이해했고 동을 곧 마음의 용이요 잠정적인 형태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중동의 원리는 우리 한국 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춤은 감정을 억제하고 내면적 표현을 내포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인 때가 많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춤의 정중동의 원리는 도교의 정중동의 원리가 주자 호흡법의 정동의 호흡법과 일치하여 밀바탕에 잔존하며 생기게 된 우리 민족의 유풍이라 생각된다. 도교는 중국으로부터 고구려에 전래된 것으로서 대개는 불로장생의 신선 사상의 형태를 띠고 발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용식은 도교 이전의 고유 신앙 속에 이미 선교적인 신앙과 사상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Shamanism과 도교(선교)와의 본질적인 면에서 상이점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백제는 본래 부여와 고구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무속도 고구려와 같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고구려에서 무당이 여우의 괴이한 일에 대한 설화가 있듯이 백제에는 무당이 능히 구참을 해석한 것이 있다. 이는 고구려와 동일한 계통에서 나왔고 또 그런 유에 소속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관해 <후주서>를 살펴보면 백제는 음양오행의 술법을 해독하였다고 운위한 것은 곧 이 구참을 해독한 무당이 고구려의 일관과 일치한 인물이라는 설이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시조 온조왕 25년 봄, 2월에 왕궁안의 우물물이 무섭게 넘치고 한성 사람의 집과 말이 머리 하나에 몸통이 둘인 송아지를 낳았으니 일관이 말하기를 “우물물이 사납게 넘치는 것은 대왕께서 떨쳐 일어나실 조짐이고 송아지가 한 머리에 몸이 둘인 것은 대왕께서 이웃나라를 합병하실 김새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기뻐하여 드디어 병진마(并辰馬)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고 운운하였다. 여기 일관이라고 한 것은 역시 무당인 것 같다. 그러므로 백제시대 또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무풍을 숭상하였다는 것<sup>31)</sup>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상상할 수 있다. 백제의 문화는 침류왕 원년에 진으로부터 호승인 마라난타가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풍만해졌고 예술에 있어 아름답고 우아한 멋을 한층 가하게 되었다<sup>32)</sup>.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대 삼국 불교의 전통을 전승, 종합하여 중국으로부터

31) 이능화(1970). 「조선무속고」, 한국의 민속 종교 사상, 김열규 역, 삼성출판사, p.556.

32) 김현숙(1991). 불교영향을 받은 한국무용의 흐름, 삼신각, p.37.

터 전래된 불교가 통일 신라에 이르러 한 민족의 불교로 성립되게 된다. 이는 귀족 불교의 성격으로 샤머니즘과 융합된 정토신앙, 미륵신앙이 민중 속으로 파고든다. 수용 당초로부터 왕실 주도하에 이루어진 불교는 신라에 있어서 미륵 신앙과 같은 정토 사상을 깔고 있어 미륵선화와 화랑이라는 관계를 낳게 되었다.

즉 국가의 지배 계층은 불교를 민중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이용, 국가적인 제도로 승과제도를 확립하여 민중을 교화시키기 위해 승려를 선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문화 예술적 수단들이 강구되었는데 원효가 무애무를 추었다는 근거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민간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의식은 의례와 의식 음악, 의식 춤이 샤머니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신라에서 고려까지 이어진 연등회로 고대 이래 영고, 무천, 동맹 등의 국속과 화랑의 가무 등 신라의 선풍이 습합되어 종합적인 대제전을 이루었던 것<sup>33)</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 의식이 더욱 발전하여 영산제 상주권 공제, 영수제, 각룡제(各弄濟), 전예수제 등이 성행하였으며 불교에 대한 민중의 강화로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등의 작법이 각 사찰에서 성대히 추어졌다.

이 밖에 부처를 공양하고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 백제의 기악무와 불교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위한 무애무 등이 있다. 불교는 참선 등을 통한 자력에 의한 해탈을 중요시하는 자행 의례적 요소뿐 만아니라 타행력에 의해 정토를 구현 한다는 타행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대중을 교화대상으로 하는 제의식에는 의식 음악과 의식 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의식이 진행되는 속에서 일반대중의 교화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신앙행위 속에서 불교의 예능적 성격과 형식이 만들어 졌으며 불교의식은 종교적 체험과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중요시 여겨졌다. 이 속에서 의식 춤은 불교에 의한 대중 교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무교가 불교에 전적으로 가탁함으로써 하나의 창조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형태이다. 그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원효대사에서 본다. 그는 한국 최고의 불승일 뿐만 아니라 가장 창의적인 스님이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창조력을 발휘하게 한 그 저변에는 무교적 전통이 흐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sup>34)</sup>.

33) 김현숙(1991). 위의 책, p.37.

34) 유동식(1975). 韓國巫敎의 歷社와 構造, 延世大學敎出版部, p.37.

신라는 무당을 가리켜 차차웅이라 했다. 웅으로서 무라고 한 것은 신시의 환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환웅의 신시는 곧 고대에 있어 무당들이 축원하는 일을 할 때 그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단군이라 호칭하였을 것이다. 단군은 곧 신권이 있는 하늘의 아들이며 신라 사람들이 차차웅으로서 제사를 숭상하고 귀신을 섬겼으므로 차차웅을 두려워하고 또한 공경하여 존장을 호칭하여 차차웅이라 한 것이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진한 육부족의 사람들에 의해 추대되어 거서간(왕의 칭호)이 되었다. 진한의 말로는 왕을 거서간이라 하였다. 후한서의 내용을 보건데 오직 마한계통의 사람이 진국의 왕이 되었다고 운운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보면 박혁거세는 반드시 마한계통의 사람이었으며 마한의 여러 국읍에서는 각기 한사람이 천신에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하였는데 그를 천군이라 호칭했다. 그러므로 박혁거세도 역시 천신에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천군이요 이를 주관하는 천군은 차차웅 곧 무당인 것이다. 남해 차차웅은 친구 동생인 아로로 하여금 시조 묘에 드리는 제사를 주관케 하였고 신라의 풍속은 무당에 제사드리기와 귀신섬기기를 숭상하였으니 아로 또한 무당임에 틀림없다<sup>35)</sup>.

성경린은 '전통무용연구'에서 유교 사상 체계 아래 모든 제도와 문화생활에 음양오행 사상을 적용시켰다는 연유로 국 중 춤은 이 원리에 의해 춤이 구성되었으며 춤 동작 또한 음양오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증명하고 있는 춤이 처용무라고 할 수 있으며 처용무는 다양한 형태로 대형을 이루지만 그 구성은 일자배열, 발바디춤, 작대 무, 수양수오방무, 좌선회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자 배열의 일이라는 숫자는 양의 수이고 처용무가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춤임을 볼 때 악귀는 음에 해당함으로 '양으로 음을 물리치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무구의 배치, 즉 사방작대, 오방작대를 보면 가운데에 황색을 두고 동쪽에 청색, 남쪽에 홍색을, 서쪽에 백색, 북쪽에 흑색을 배치하는 것과 춤을 추고 물리갈 때의 퇴장이 청, 홍, 황, 흑, 백으로 중심이 황색인 것을 보면 우리 춤은 음양오행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이능화(1970). 「조선무속고」, 한국의 민속 종교 사상, 김열규 역, 삼성출판사, pp.558-9.

위와 같은 사례로 고구려의 고분에서 보여 지는 동쪽 벽의 청룡, 서쪽 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에 현무를 그려 넣은 형상과 마찬가지로 처용무를 출 때 다섯 무원이 각기 청, 백, 적, 흑, 황의 다섯 색깔의 무복을 입는 것 또한 오방신을 섬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통의 색채 개념과 한국 춤의 구성은 음양오행적 우주관에 근거를 둔 것으로 현행되는 우리의 전통 춤 역시 음양오행에 근거하여 추어지고 있다.

한국 춤의 기본 동작에 있어 몸체에서 일어나는 음양의 예를 들어보면 발 동작의 굽힘과 펴는 동작을 할 때 굽힘과 동시에 발은 땅을 딛는다. 발이 땅을 누름과 동시에 에너지는 하강을 하는데 이것이 음이며 에너지가 끝까지 하강하여 극에 이르면 그 에너지는 족적에 의하여 반전한다. 반전함과 동시에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이 양이며 이 원리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로써 음양의 원리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전삼후삼, 삼진삼퇴 굽히고 펴는 동작과 돌음 과 죽음, 죄었다 줄었다 하는, 감고 푸는 동작을 할 때 몸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 춤 동작의 근본인 뿌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춤은 음적 요소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양적 요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음과 양은 변화와 순환으로 조화를 이루어 한국 춤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상고 시대인들은 자연현상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숭배하였고 동물을 신령과 연계하여 동일시하면서 주술 형태의 신앙의식을 갖기 시작 하였다. 이후 농경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풍요의례가 부족단위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매개하는 중간 역할자가 조직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를 통해 하늘에 기원을 드리고 감사하는 춤을 추었다.

역사적 흐름을 통해 본 한국 고대춤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춤의 형태를 보면 부족국가시대의 제천의식을 비롯, 잡귀를 쫓고 비를 기원하는 지모무, 일신을 대상으로 하는 주리무,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춤들, 풍농을 기원하는

농악무와 지신밧기, 강강술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무술 춤,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궁중 춤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민족 고유 신앙인 무속의 기반위에서 행하여진 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춤들 중 고구려 고분의 비천무는 천신과 도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춤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족연맹체제에서 고대국가로 전환되어 갈 때 족자의 선민의식 대신 춤을 통하여 권세를 강조했고 도덕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속과 함께 외래종교현상이 습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춤은 예술로서의 형태가 갖추어 지고 독자적인 형태로 분리되어 졌다. 삼국에 있어 불교 전래는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 춤으로 백제의 기악무와 신라의 무애무가 추어졌다. 또한 국가적 행사로서 팔관회와 연등회가 성행했고 각 사찰에서 범패 작법이 성대히 추어졌다.

통일신라의 춤 활동은 유·불·선의 제 종교적 현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총합적 종교성을 보이면서 유희성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렇듯 융합된 종교문화현상에서의 춤 성격은 그 사상적 측면과 맥을 같이 하였다. 특히 동해 용왕은 신라의 호국 불교관을 반영하였으며, 방위적 신관은 왕과 신이 어울릴 수 있는 도교적 방술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교 사상 체계 아래 모든 제도와 문화생활에 음양오행 사상을 적용시켰다는 연유로 국 중 춤은 이 원리에 의해 춤이 구성되었다.

한편 궁중 구나무로서 처용무나 화랑의 심신 수련을 위한 춤들은 일정한 시련을 겪은 후 수호 령이 강림한다는 무속적 체험의 형태를 지녔고 가무로서 신령과 교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궁중으로 들어간 처용무의 구성과 의상, 무구의 사용과 배치 등이 청, 홍, 황, 흑, 백(靑, 紅, 黃, 黑, 白)으로 고정되어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춤 동작에 음양오행 사상을 비롯한 동양 민간 사상의 일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위의 사실을 증명해 준다.

결과적으로 한국 춤과 종교의 습합으로 인해 한국 전통춤의 기본 동작에 몸체에서 일어나는 음양과 오행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즉 발동작의 굽힘과 펴, 동작을 할 때 굽힘과 동시에 발을 땅을 딛거나 발이 땅을 누름과 동시에 에너지가 끝까지

하강하여 극에 이르면 그 에너지는 축적에 의하여 반전하는 원리가 우리 한국 춤 원리이다. 반전함과 동시에 상승하게 되는 양의 원리와 이 원리가 순환하면서 음양의 원리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삼후삼, 삼진삼퇴 굽히고 피는 동작과 돋음과 죽음, 죄었다 줄었다 하는, 감고 푸는 동작으로 발전하여 몸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춤 동작의 근본이 된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살펴본 결과 한국 고대 춤에 내재된 종교적 양상은 한국 고유의 토속 신앙인 무속이 밀바탕을 이루면서 불교나 유교, 도교 등, 외래 종교를 수용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종교적 특성이 한 민족사에 스며들어 예술적 형태의 춤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연구가 저조한 고대사 예술 분야에 미흡하나마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 전통의 정신과 우리 춤 속에 살아있는 종교성과 생명의 철학을 찾아 현재의 무용 예술에 일조할 수 있는 연구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하여 연구된 자료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정리가 자세하게 서술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미비점은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나아가서 근대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무용의 종교성을 파악하여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제언해 본다.

## ■참고문헌

삼국지(三國志) 권(卷)30 위서(魏書)30 동이전30, 고구려(高句麗)조.

후한(後漢)서 한조 고구려 조소.

속 일본(日本)기 발해국지장전.

일본서기(日本書紀)권13 54. 한국신원류고- 동이(東夷)전.

사기- 기자조선(箕子朝鮮).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매월당(梅月堂)집 권5.

화랑세기(花郎世紀) 권2.

삼국유사(三國遺事).

김열규(1977). 『한국 신화와 무속 연구』, 일조각.

- 김현숙(1991). 『불교영향을 받은 한국무용의 흐름』, 삼신각.
- 김양근(1981). 『무용의 탐구』, 한국광보개발원.
- 겸전무용(1989). 『한국 불교사』, 민족사.
- 유동식(1975). 韓國巫敎의 歷社와 構造, 延世大學敎出版部.
- 유동식(1976). 朝鮮のシヤーマニスム, 學生社.
- 이능화(1970). 「조선무속고」, 『한국의 민속 종교 사상』, 김열규 역, 삼성출판사.
- 이두현(1987). 『한국연극사』, 학연사.
- 이병옥(1993). 「고대한국무용사연구」, 경기대박사학위논문.
- 정병호외 4인(1992). 『몽골민속』, 북조리.
- 조흥윤(1983). 『한국의 무』, 정음사.
- 주정충부(酒井忠夫). 최춘식 역(1995), 『한국인의 마음을 빛은 巫.儒.佛.道』.
- 최남선(1947). 『조선상식문답』, 동명사.
- 한만영, 전인평(1989). 『동양음악』, 상호출판사.
- 한국도교사상연구회(1994). 道教와 韓國思想, 亞細亞文化社.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第6回)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韓國學의 世界化 .
- 한우근(1970).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 Dordji Banzarov(1971). 『Shamanism연구』, 白鳥庫吉역, 신시대사.
- E. Canetti(1960). 『군중과 권력』, 강두식 역, 주우.
- H. 리이드(1974). 『예술의 의미』, 하중현 역, 정음사.
- C. sachs(1992). 『춤의 세계사』, 김매자 역, 박영사.

논문투고일	2009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4일
심사완료일		3월	25일

## Abstract

### Religious Aspect in the Historical Trend of Ancient of Korean Dances

Song HyeSoon  
*Sejong University*

This thesis inquiring into the historical truth of dancing in ancient Korea society through the basic work would set up a concept of ancient Korean dancing, first.

Finally, it would be dividing the reason for creating dancing into a sportaneous facto and a culturally adapted factor from abroad.

The summary of religions backgrounds that was shown in the process of forming ancient Korean dancing is as following;

First, the Korea's philosophy of religion had mainly consisted of Shamanism Taoism, Confucianism, "YU-Bu-Sun" idea and "Mingan" idea that had been related to Shamanism directly or indirectly. Second, Korea's Shamanism one of the oldest religions exist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other ones, could be considered as a branch of a primitive religion that had been spread over north-east Asia. it showed a unique ceremonial way in which people tended to interchange with dancing throughout dancing and singing. Third, the style of Shamanism dancing shows us not only a dance of ancient agricultural ceremony for expelling bad spirits and greeting good ones but also a dance of greeting an ancient god. In addition to this, it had an inherent influence on "Jecheon" ceremony and a dance of labor, people's pay and palace. Fourth, buddhism, transmitted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had played a role as a reigning doctrine or a state-defending idea in the early country units However, Buddhism had established, step by step Its own territory in the middle of people's life as time had gone. Fifth, Baekjae's "Giakmoo" and Shilla's "Mooyemoo" were dances on the purpose of spreading Buddhism. On the other hand, both "Palwanhwoi" and "Yeondunghwoi" were performed as a ritual of a state, and "Bumpae" work was carried out at each Buddhist temple, simultaneously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It contained a phenomeron of "YU-Byl-Sun" big idealism,

especially around the Unified Shilla era. The two representative styles of dancing were a dance for Hwarang's discipline of both spirit and body and a dance of palace, the so called "Cheoyonhmoo", of Which composition, the usage of consume and overall actions were reflected by the principle of "Umyangohaeng" theory. Most performing events of the ancient Korean dancing were "Poong-Ak" that was designed as a ritual for spirits. The Korean style of buddhism, Confucianism, Taoism, "Yu-Bul-Sun" idea, etc had been mixed, changed and developed based pm a mew concept of the transcendent shamanism that prays for the plentiful production and god's blessing.

keywords: Shamanism(무속), "Jecheon" ceremony(제천의식), "YU-Bul-Sun" idea(유불선 사상), "Umyangohaeng"(음양오행)